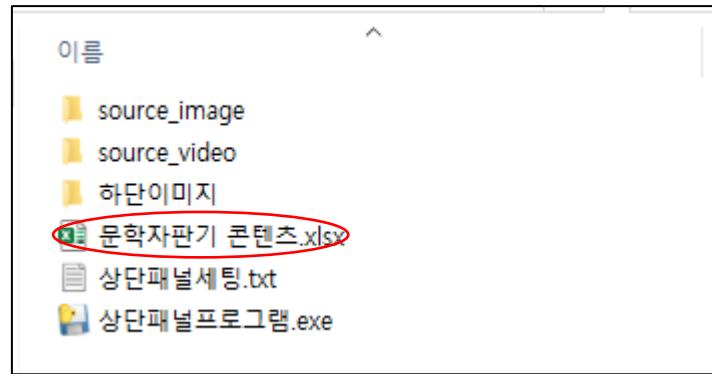


# 문학자판기 사용 메뉴얼

## 1. 용지 교체 및 재설정

<https://youtu.be/GWqICnNop-w>

## 2. 콘텐츠 관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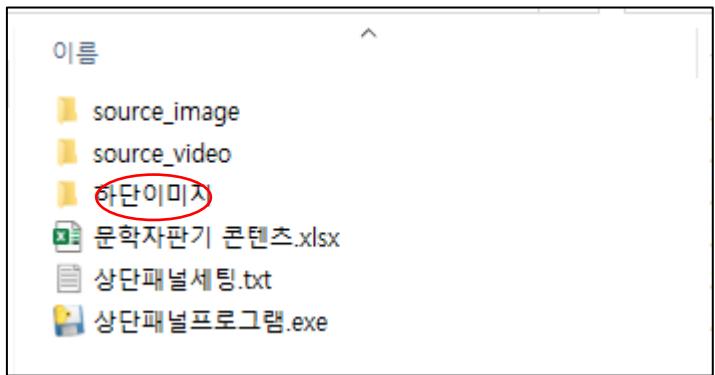
- 1) 기기에 연결되어 있는 USB메모리를 사용하는 컴퓨터에 연결하고 ‘문학자판기 콘텐츠.xlsx’ 엑셀 파일을 엽니다.

A	B	C	D
순번	제목	작가	내용
1	별동 떨어진 데	윤동주	<p>나는 처음 그를 끝불행한 존재로 가소롭게 여겼다. 그의 앞에 설 때 술피지고 죽은한 마음이 앞을 가리곤 하였다. 마는 돌아이켜 생각컨대 나무처럼 행복한 생물은 다시 없을 듯하다. 꿈음에는 이루 비길 데 없는 바위에도 그리 탐탁치는 못할망경 자암분이 있다 하거늘 어디로 간들 상의 뿌리를 끊지 못하여 어디로 간들 생활의 불편이 있을소나. 칙칙하면 솔술 술바람이 불어오고, 심심하면 새가 와서 노래를 부르다 가고, 출출하면 한 줄기 비가 오고, 밤이면 수많은 별들과 오순도순 이야기할 수 있고 ..... 보다 나무는 향동의 방향이란 거주장스런 과제에 통직하지 않고 인식적으로 우연으로든 단상시시켜준 자리를 지켜 무진무중한 영양소를 훔쳐와 영롱한 것빛을 받아 물어 손쉽게 생활을 행하고 오로지 하늘만 바라고 뻗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행복스럽지 않으나.</p> <p>이 밤도 고제를 물지 못하여 안타까운 나의 마음에 나무의 마음이 점점 옮아오는 듯하고, 향동할 수 있는 자랑을 자랑지 못함에 빼저리듯이나 나의 절은 선배의 풍년에 물 선배도 밀지 못할 것이라니 그리면 영리한 나무에게 나의 방향을 물어아 할 것인가.</p> <p>어디로 가야 하느냐 둘이 어디나 서가 어디나 날이 어디나 아자 저 별이 번역 흐른다. 별동 떨어진 데 내가 네가 길 궁인가보다. 하면 별들이 꼭 물어아자 괄 곳에 물어가야 한다.</p>
2	화원에 꽂이 핀다	윤동주	<p>나는 이 귀한 시간을 슬그머니 둥무들을 떠나서 단 혼자 화원을 거닐 수 있습니다. 단 혼자 꽃들과 풀들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방한 일인가겠습니까? 잡힐 나는 온정으로 이를들 대할 수 있고 그들은 나를 웃음을 맞아 줍니다. 그 웃음을 눈물을 대하는 것은 나를 감상할까요. 고독, 정속도 확실히 아름다운 것임에 틀림이 없으나, 여기에 또 서로 마음을 주는 둥무가 있는 것도 다정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우리 화원 속에 모인 둥무들 중에 집에 학비를 청구하는 편지쓰는 날 저녁이면 생각하고 생각하던 걸 거두 몇 줄 써보낸다는 건, 기뻐해야 할 서유(題)(통칭(通稱) 율금봉투)를 받아온 손이 물립니다는 건, 사랑을 위하여서는 법언을 읽고 잠을 잊어 버린다는 건, 사상적 당작에 자살을 기약한다는 건..... 나는 이 여러 둥무들의 가혹한 심정을 내 것인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서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.</p>
3	화원에 꽂이 핀다	윤동주	<p>개나리, 진달래, 앉은뱅이, 라일락, 인데레, 철레, 복사, 들장미, 해당화, 모란, 필리, 장포, 카네이션, 풍선화, 백일홍, 채송화, 다발리아, 해바라기, 코스모스-코스모스가 풀들이 떨어지는 날 우주의 마지막은 아닙니다. 여기에 두쁜 하늘이 놓이지도 빨간 노란 단풍이 풍에 흔지않게 가지마다 물들었다가 귀뚜리 풀들이 끊어짐과 함께 단풍의 세계가 무너지고 그 위에 하룻밤 사이에 소幅度 흰 눈이 내려, 내려 쌓이고 화로에는 빨간 물들이 피어오르고 많은 이야기로 많은 일이 이 화롯가에서 이루어집니다.</p> <p>독자체현   여러분은 이 글이 씌어지는 때를 독특한 계절로 짐작해서는 아니 됩니다. 아니, 봄, 여름, 가을, 겨울, 어느 철뿐나니 상정하셔도 무방합니다. 사실 1년 내내 봄일 수는 없습니다. 하나 이 화원에는 사철내 봄이 창춘들과 함께 상상하게 등대하여 있다고 하면 과분한 자기선전일까요. 하나의 꽃밭이 이루어지도록 손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생과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. 맨은 얼마의 단어를 모으 이 풀들을 지적끼리는 데도 내 머리는 그렇게 명석한 것이 못 됩니다. 한 해 동안을 내 두보로써가 아니라 봄으로서 물들이 해아려 세포 사이마다 간직해두어서야 겨우 몇 줄의 글이 이루어집니다. 그리하여 나에게 있어 글을 읽는다는 것이 그리 즐거운 일일수는 없습니다. 봄바람의 고민에 짜들고 녹음의 권태에 시들고, 가을 하늘 감상에 올고, 노련(嫗連)의 사색에 졸다가 이 몇 줄의 글과 나의 화원과 함께 나의 1년은 이루어집니다.</p>
4			<p>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! 허공중(虛空中)에 헤어진 이름이여! 풀리고 주인 없는 이름이여!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!</p>

2) 기존 콘텐츠에서 추가로 원하는 문구를 작성합니다.

- 추가된 콘텐츠는 총 콘텐츠에서 랜덤으로 출력됩니다.
- 기존의 ‘열’과 ‘시트’를 절대로 추가하면 안됩니다.(기기가 작동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.)
- ‘alt’ + ‘enter’로 엑셀에서 줄 바꿈을 하면 나오는 출력물에도 반영이 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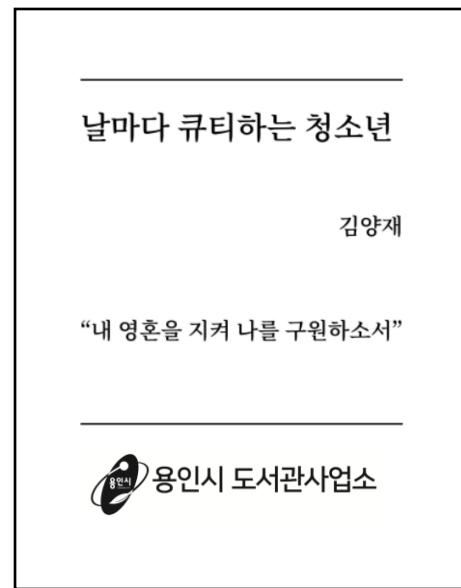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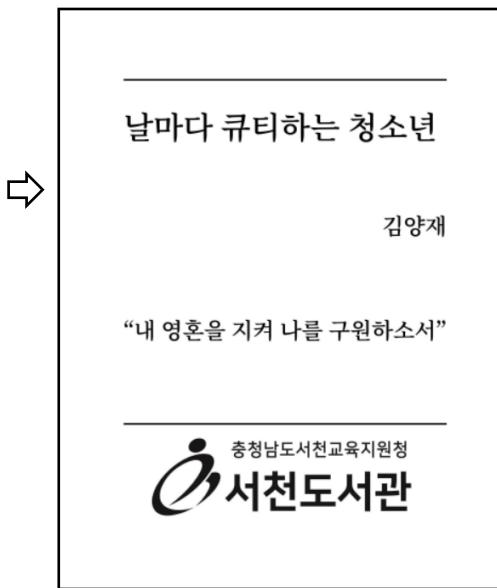
### 3. 출력물 하단 이미지 관리



1) 기기에 연결되어 있는 USB메모리를 사용하는 컴퓨터에 연결하고 ‘하단이미지’폴더에 들어갑니다.  
- 폴더명 ‘하단이미지’는 **절대로** 변경하면 안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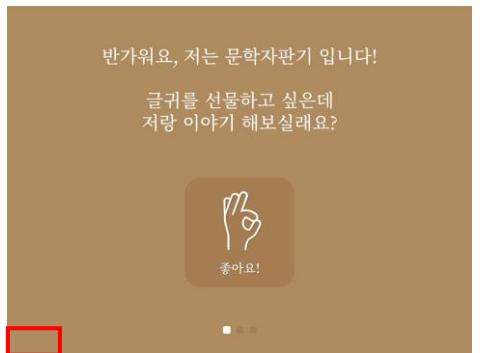


2) 폴더에 그림형식(jpg, png)으로 이미지를 추가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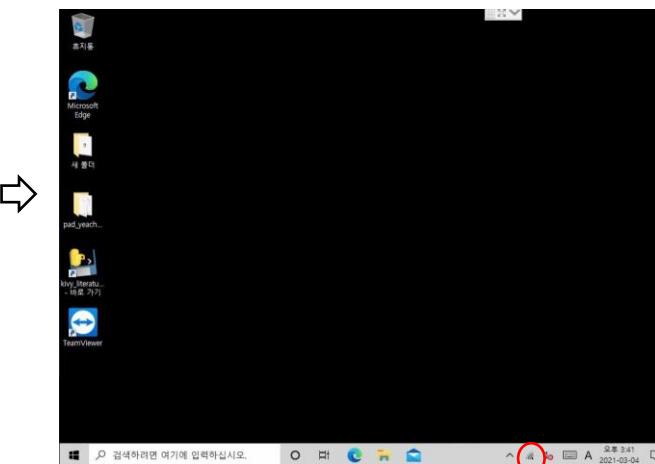


3) 폴더에 있는 이미지들은 랜덤으로 출력물 밑에 표시됩니다.

### 4. 프로그램 종료 및 와이파이 연결 (패드형/상단패널 해당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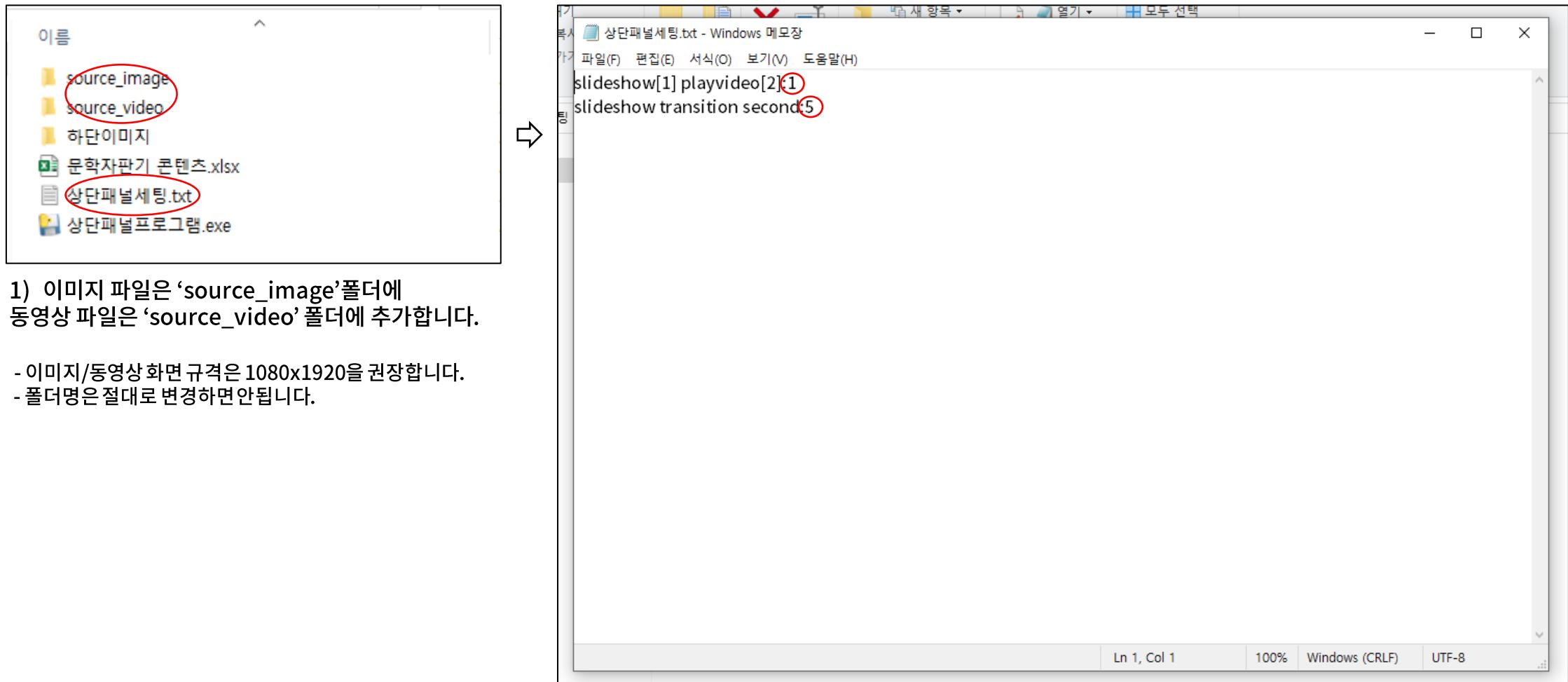
1) 숨어있는 프로그램 종료 버튼 터치 (좌측 하단)



2) 와이파이 아이콘을 터치해 공용 와이파이 또는 스마트폰 핫스팟을 통해 인터넷을 연결시켜 줍니다.

- 패드형/상단패널 자판기는 기본적으로 무선인터넷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인터넷연결이 되어있으면 원격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. 관리가 힘드시면 좌측 하단을 터치해 프로그램을 종료 시킨 뒤 인터넷을 연결해 주세요 😊

## 5. 상단 화면 관리 (상단패널 해당)



1) 이미지 파일은 'source\_image' 폴더에  
동영상 파일은 'source\_video' 폴더에 추가합니다.

- 이미지/동영상 화면 규격은 1080x1920을 권장합니다.
- 폴더명은 절대로 변경하면 안됩니다.

2) ○ 표시된 곳의 숫자를 변경하고 저장해서 상단패널을 세팅합니다. (다른 텍스트는 변경하면 안됩니다.)

- 첫째 줄에 '1'을 작성하면 이미지 슬라이드쇼, '2'를 작성하면 동영상이 상단 화면에서 재생됩니다.
- 둘째 줄에 특정 숫자를 작성하면 이미지 슬라이드쇼에서 몇 초 간격으로 이미지를 전환할지 설정합니다.